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주간의 선거운동이 28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27일 오후, 광주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선거관 직원 이 동남을 지역구 출마자들의 포스터를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민주 “정권 심판”·국힘 “巨野 심판”

〈거야〉

민주광주시당, 5·18광장서 8개 선거구 후보들 참석 승리 다짐  
국힘·국민의미래, 선거운동 챌린지·인요한 광주 찾아 지지 호소

### 총선 D-13 선거운동 돌입

4·10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거대 양당 후보들은 각각 ‘거야(巨野) 심판’, ‘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승리를 다짐하고 있고,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 야권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의 대표들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8일부터 선거일(10일) 전날인 다음달 9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레이스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의 사·도당들은 총선 후보들과 함께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총선 경쟁에 뛰어들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8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이병훈 호남권역 공동선대위원장과 8개 선거구 후보들이 참석해 승리를 다짐한다.

29일에는 김부겸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북구정 사거리에서 정준호(북구갑)·전진숙(북구을) 후보에 대한 집중 지원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같은 날 오전 6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이날 총선 후보들과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5·18민주광장과 충장로 일대에서 청소를 한 후 출근

길 인사를 하는 선거운동 챌린지를 진행한 뒤, 각 선거구로 이동해 후보별 선거운동을 한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중앙선대위원장도 이날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후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지역민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녹색정의당 광주시당은 같은 날 오전 9시 광주 서구 금호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연다. 광주지역 2개 선거구에 후보를 낸 녹색정의당은 출정식 전 각 출구길 인사를 하며 첫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광주 서구를 강은미 후보는 오전 7시 30분 풍암호수 공원 장미원 사거리에서, 광산을 김용재 후보는 같은 시각 한국수산 사거리에서 출구길 인사를 할 계획이다.

광주 북구를 지역구를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고 총력을 다하고 있는 진보당 광주시당은 같은 날 오전 9시 광주 북구 양산사거리에서 7개 선거구 후보자와 당원 등이 모여 지지를 호소한다.

새로운미래는 같은 날 오후 6시 이낙연 대표가 출마한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서 집중유세를 갖는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 광주시당은 같은 날 오전 10시 광주 상무대로 915번지에서 선대본부 출정식을 한다. 송 전 대표가 신청한 보석이 허가되면 출정식 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오전 11시에 출정식을 하고, 구속이 유지될 경우 계획대로 행사를 진행한다.

전남지역 후보들은 각 선거구에서 개별적으로 선거 캠프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지역 민심의 향배도 주목된다. 선거일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약재 등 새로운 변수 등장으로 인해 표심이 요동을 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 모두 조심스럽게 민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광주·전남에서 국민

의힘의 활약도 기대된다. 민주당이 후보 간 고소·고발을 이어가면서 내홍을 겪고 있는 데다 16년 만에 불모지인 광주·전남지역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선 가능성이 낮지만 유의미한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3선 국회의원에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후보가 순천·광양·곡성·구례에 출마, 또 한 번 불모지에서 기적을 일으킬지도 관심사다. 이 후보는 3선 중 두번을 순천에서 당선돼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으로 남아있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역시 사활을 걸고 마지막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소나무당 등 제3지대에 서도 광주·전남 곳곳에 후보를 내고 배수진을 쳤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선전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의 투표율에 집중하고 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8회 지방선거 때만 보더라도 굳이 투표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광주 투표율은 전국 최저(37.7%) 수준에 머물렀다”며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부터 시작해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공 교수는 “광주·전남에서는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투표율 견인 효과가 확실할 것 같다”며 “광주·전남지역은 민주당이 불 때 우세 지역이지만 민주당을 자신 있게 찍는 사람들이 없기도 하다.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선택지가 추가되면서 부담도 덜고 투표 참여에 재미를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 교수는 제3지대 정당 후보들의 약진 가능성에 대해 “제3지대 정당 비례대표는 몰라도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의 의미 있는 득표율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계속해서 막판 결집을 노리고 있지만 노력해도 ‘모을 표’가 없는 셈이다. 투표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찍을지 정한 상태고 변동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khn@kwangju.co.kr



## 제69회 호남예술제 전국대회

접수: 음악·무용·국악 4월 4일(목)~9일(화), 미술·작문 5월 1일(수)~3일(금)

전국 최고의 종합예술제인 ‘제69회 호남예술제’가 오는 4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호남신학대학교 등에서 열린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호남예술제는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수많은 예술가들을 길러낸 대회입니다. 호남예술제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 참가자격: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참가부문: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
- 접수방법: 인터넷신청 : http://art.kjmedia.co.kr
- 경연일정: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 문의: 062-220-0541

光州日報社

## 무등산수박 ‘푸랭이’ 지오푸드 된다

세계지질공원 향토음식 브랜드  
광주시, 다양한 상품 개발 나서

무등산수박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오푸드에 이름을 올린다. 무등저장거리동동주, 전통두부, 청국장, 짬뽕오겹살, 백숙, 연잎차, 허브차에 이어 8번째다.

광주시는 27일 무등산수박생산자조합과 지오푸드(GEOfood)로 등록한다고 밝혔다.

지오푸드(GEOfood)는 세계지질공원 지역향토음식 브랜드로, 지질공원 지역에서 재배하거나 생산된 농산물·음식·음료에 국제적 브랜드를 적용해 지질공원 식품에 경쟁력을 높이고 회원 지질공원 간 상호 홍보활동 등을 돕는 역할을 한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2021년 대한민국 최초로 지오푸드(GEOfood) 네트워크에 가입해

청송 세계지질공원과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까지 참여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현재까지 총 19개국 28곳의 세계지질공원이 지오푸드 네트워크에 가입했다.

광주시는 광주에서만 재배 가능한 무등산수박 ‘푸랭이’의 스토리텔링을 담아 그 명성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모는 물론 광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무등산 수박은 일반 수박보다 압도적으로 크고 감칠맛이 뛰어난 명품수박으로 왕에게 올리는 광주 유일의 진상품이었으나, 생산 농가들이 줄어들고 재배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명맥이 끊길 위기를 겪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광주시와 무등산수박생산자조합은 무등산수박을 이용한 상품 개발 및 제작 과정에서 상호 협의하고 상품제작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다각적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4월 5일** (예정)  
**GRAND OPEN**

모두가 기다린 단 한자리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LOTTE CASTLE**

1BL / 2-1BL / 2-2BL 3개 블록 84~233㎡ 총 2,772세대

**1660-2772**